

미술관 옆 미술관 '양림동은 지금 전시중'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장외섹션 '소리숲' 주제로 12인 작가 참여 전시공간 외 빈집 등 활용 눈길 마을 자체 전시행사·파빌리온도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장외섹션 '소리숲' 전의 전시공간 중 양림동 옛 파출소에서 옛볼 수 있는 사단 아피프의 작품.

지난 주말 광주 양림동에 진기한 풍경이 펼쳐졌다. 평소 주택과 카페, 식당, 갤러리 등이 어우러져 고요한 미학을 풍기던 골목에 국내를 비롯한 외국인 관람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전시투어 중이었다. 양림동에 작업공간을 둔 작가들을 저마다 관람객을 맞이하고 작업세계를 설명하거나, 관람객들은 좁은 골목에서 작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목을 축이는 관람객들로 곳곳카페는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다.

이곳 양림동은 바로 지난 7일 개막한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장외섹션 전시장이다. 광주비엔날레는 보통 북구 용봉동에 있는 본전시관 이외에 광주 곳곳의 미술관이나 문화기관을 외부전시 공간으로 활용해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림동 마을 자체를 장외섹션으로 활용해 '소리숲' 전

을 준비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개막과 함께 국내외의 미술 관계자들을 초청하고 프리뷰 일정을 진행하면서 지난 주말 양림동은 사람들로 가득했던 것. 마을 전체를 미술관 안 전시공간으로 인식해 전개한 큐레이팅이 흥미롭다.

장외섹션 '소리숲'전은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빈집 △옛파출소 △한부철 갤러리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 △양림문화센터 △한희원 미술관 △양림쌀롱 8곳으로 전시동선이 이어진다. 줄리안 아브라함 토가, 리디아 오라만, 전형산, 마리아 로젠펠드, 사단 아피프, 김자이, 김형숙, 안젤라 블록, 김영은, 미라만, 손수



지난 6일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프리뷰 일정을 위해 광주를 찾은 관람객들이 장외섹션 양림동 전시 '소리숲'이 펼쳐지고 있는 양림쌀롱에서 마리아 로젠펠드 작가의 소리 기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민, 안드리우스 아루티우니안 등 12인의 참여작가들은 소리 프로젝트와 주민 참여에 기반한 다양한 협업 작업을 구현했다.

특히 빈집과 옛파출소는 양림동에서 폐허로 남아있었던 공간인데, 전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버려진 공간을 인위적으로 개조하거나 정비하지 않고, 오랜 시간 관리되지 않은 쓸쓸하고 남루한 흔적 그

위에 작품을 펼쳤다. 정리되지 않은 옛집의 수풀, 케케묵은 먼지들, 벗겨진 벽지와 나란히 있는 작품은 그것을 감상하는 관람객의 시선과 어우러져 기묘한 느낌을 주었다.

동시에 양림동에는 주민, 예술가, 기획자들이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발맞춰 기획한 제3회 양림골목비엔날레가 열리고 있

다. 이번 양림골목비엔날레는 양림동에서 진행되는 광주비엔날레 장외섹션 전시와 파빌리온 전시 사이사이를 잇겠다는 골자로 준비한 주제전 'Connecting Way'가 메인 콘텐츠다. △1912한옥(빛, 시간의 중첩) △10년후그라운드(잇다) △차고 갤러리(조우하다)가 상설전시장으로 활용되고, 이 전시장 사이를 잇는 야외 골목 곳곳에도 다양한 작품이 설치됐다.

또 현재 양림동에서 작업하고 있는 지역작가들과 협업해 자신의 작업실을 오픈, 누구나 그들의 작품과 작업과정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일명 '오픈 스튜디오' 전이다. 운이 좋은 작업실에서 작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가 2018년부터 본전시와 함께 진행한 부록전시 개념의 국가관 파빌리온은 올해 광주 곳곳 갤러리, 문화기관 등지에 31개가 마련된 가운데 양림동에는 5곳이 조성됐다. △이강하미술관(오스트리아) △양림미술관(캐나다) △이이남스튜디오(폴란드) △씨움(덴마크) △팽귤마을공예거리 22동(스페인) 5개소에서 해당 국가의 동시대 미술을 엿볼 수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11시 음악산책 '김종진, 빛을 향한 건축 순례'

24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클래식 통해 건축 명소 소개



계 감상할 곡은 '베토벤 현악 4중주 14번 1악장'. 4개의 현이 따로 또 같이 느끼게 합주하는 것이 인절 흠브로이히 미술관섬의 오솔길들이 서로 만났다 갈라졌다 하는 느낌과 닮아있다.

오전의 여유와 환기의 시간으로 안내하는 광주예술의전당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이 '김종진, 빛을 향한 건축순례'라는 주제로 오는 24일 오전 11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에는 건축과 클래식, 공간과 사람을 잇는 김종진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가 콘서트 가이드로 나선다.

김종진(사진) 교수는 건축을 이야기로 써내는 작가이자 빛 속에서 삶과 공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에 천착하는 건축가다. 저서 「공간의 진정성」, 「그림자의 위로」, 「미지의 문」을 통해 그는 미술, 철학, 문학, 음악, 심리학에도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지닌 이야기꾼임을 보여준다.

이번 공연에서는 「그림자의 위로」에 등장하는 공간들, 그 공간을 채우는 빛과 그림자들이 만드는 무음의 메시지를 클래식 음악 선율에 실어 관객들과 함께 빛을 향한 건축 순례를 떠난다.

1부 침묵의 빛에서는 남프랑스 르네수도원으로 떠난다. 초기 수도원 정신으로 탄생한 시토회의 대표 수도원이자 많은 건축가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 르네수도원. 이곳에서 바흐로 이어지는 건축과 클래식 이야기에서 담백한 공간이 만든 차분하고 묵직한 빛, 소리의 울림을 만나본다. 이어 '바흐, 푸가의 기법, 9번 대선율'을 연주한다.

2부 예술의 빛에서는 독일 인젤름브로이 미술관으로 향한다. 자연과 생태와 하나가 된 작은 파빌리온 건물들이 산재한 미술관에서 녹음 짙은 자연과 하얀 공간의 빛을 만나볼 수 있다. 이 길을 따라 함

3부 생명의 빛에서는 멕시코 길라드리 주택을 소개한다. 멕시코 건축가 루이스 바라간이 은퇴 후 지은 마지막 작품으로 빛과 색의 움직임, 정원의 색상, 꽃과 나무 모두 멕시코 전통과 자연을 따른 공간이다. 이곳에서 생명의 빛과 다채로운 색상의 빛을 발견해 본다. 멕시코의 자연과 햇살을 담은 '권해운 작곡의 현악 4중주를 위한 보사노바'를 연주한다.

4부 안식의 빛은 스웨덴 우드랜드 묘지로 향한다. 19세기 유럽에서 유행하던 폐허 혹은 암울한 정서가 아니라 스칸디나비아의 낭만적 자연주의를 바탕으로 아름답고 목가적인 공원묘지를 만나볼 수 있다. 삶과 죽음이라는 생명의 순환을 느끼게 하는 걸작으로 편안하고 고요한 공간을 배경으로 평화로운 자연과 안식의 빛을 만나보자. 함께 감상할 곡은 스웨덴 작곡가로 낭만주의적이며 북유럽적인 정서가 강한 '빌헬름 스텐함마르의 현악 4중주 F단조 2악장'이다.

연주는 우리 지역 젊은 예술가들로 구성된 현악 4중주팀이 참여한다. 바이올린 황은홍, 김지민, 비올라 권혜린, 첼로 조은강이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선보인다.

관람료는 R석 2만원, S석 1만원으로 예매는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https://gjart.gwangju.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

달빛 아래 삶을 비추듯 '월하금무'

14일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4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국립무형유산원 예능풍류방 레지던시 작품 초청공연 '월하금무(사진)'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유산 전승자를 대상으로 기획된 국립무형유산원 예능풍류방 레지던시 작품을 초청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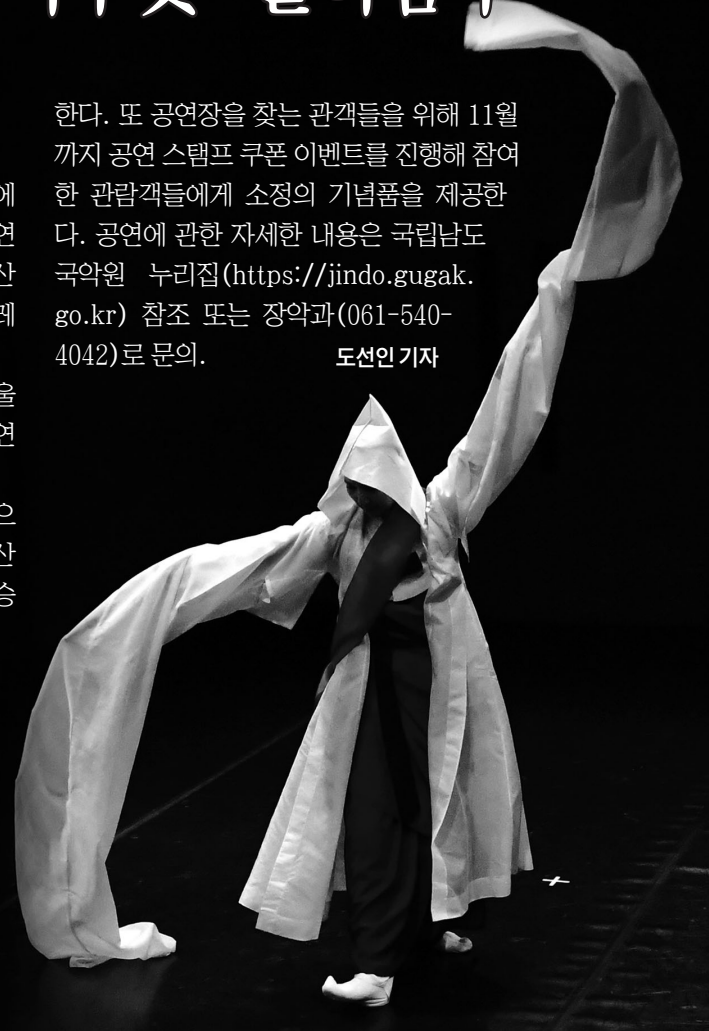
월하금무는 '달빛 아래 삶을 비추듯 가야금과 춤의 어울림'라는 의미의 작품이다. 공연에서는 오경희 명인과 김연정 명무를 주축으로 가야금과 한국무용을 선보인다.

공연은 가야금과 춤의 만남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서공철 산조 중 단절된 가락을 복원한 '13현 가야금산조', 다양한 장단에 추는 춤과 북놀음까지 담고 있는 '승무', 서공철류 가야금산조의 휘모리를 25현가야금과 퍼커션으로 편곡한 '휘모리' 주제에 의한 상상, 입춤 형식의 살풀이 기본춤 '본살풀이'가 이어진다.

이어 '상주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을 연결해 편곡한 '아리랑연곡',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태평춤'으로 무대 막을 내린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읍사무소와 국악원, 오산초등학교(고군면)를 거쳐 회동(신비의 바닷길) 등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

한다. 또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11월 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 참조 또는 장악과(061-540-4042)로 문의. **도선인 기자**



'우제길: 빛이 있으라' 특별전

12월 1일까지 우제길미술관

우제길미술관이 한국을 대표하는 추상화가 우제길(1942~)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특별기념전 '우제길: 빛이 있으라'를 오는 12월 1일까지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작품 활동에서 '빛'이 어떻게 영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해왔는지를 깊이 탐구한다.

특히 기존 전시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신작 10여점을 포함한 다채로운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우제길 작가는 1960년대의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추상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어두운 배경에 직선을 강조한 작품을 선보였고, 1976년 『한국미술대상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추상 화가로 자리 잡았다.

1990년대 중반에는 수평적 구조에서 벗어나 조형적 변화를 시도했고, 어두운 색에서 녹색과 붉은색으로 색채를 확장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원색을 바탕으로 면을 다양하게 분할하며 변주를 줬다. 2020년대에는 다양한 선과 면이 교차하면서 색채 표현이 더욱 풍부해지고

역동적으로 발전했다. 우제길 작가는 이렇게 빛과 색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변주하며 새로운 회화 세계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김치순 관장은 "이번 전시는 우제길 작가의 독창적인 회화 세계를 통해 빛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빛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을 넘어 감동과 희망을 전달한다. 작가의 작품에서 빛이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우제길미술관은 동구 윤림동에 있다. 관람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 관람료는 3000원. **도선인 기자**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